韓國旣婚女性의 人工流産 決定要因分析

金 善 雄

▷ 目 次 ◁

Ⅰ. 序 論
Ⅱ. 資料 및 分析模型
Ⅲ. 人工流産의 最近傾向과 出産力에 대한 效果
Ⅳ. 人工流産의 現況과 特徵
Ⅴ. 人工流産의 決定要因
Ⅵ. 結論 및 政策建議

Ⅰ. 序 論

姙娠中絕은 보통 流産이라고 한다. 이를 本人의 姙娠中絕 意思有無에 따라 區分하면, 비록 外部要因에 의하더라도 本人이 원치 않았거나 期待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流産을 自然流産(spontaneous abortion)이라고 規定하는 反面에, 本人의 意思決定에 의하여 招來되는 流産을 姙娠中絕 혹은 人工流産(induced abortion)이라고 한다.

本 小考의 主題는 우리나라 旣婚女性의 人工流産 行爲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觀點에서 決定要因을 分析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出産率低下에 寄與한 人口學的 側面에서의 人工流産과, 둘째, 本人의 意思, 그리고 他人 특히 醫術人의 도움으로 행해진다는 의미에서 본 社會學的側面에서의 人工流産이다. 人工流産은 일상적인 社會的 行爲와는 달리 社會倫理的, 法律的 및 宗教的 側面에서 禁止 내지 制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旣婚·未婚女性들의 人工流産經驗率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당분간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趨勢이다. 이같이 독특한 性格을 가진 人工流産은 社會學的 관심의 對象이 될 뿐만 아니라 人口政策面에서도 중요한 示唆點을 提示할 수 있는 分析對象으로 간주된다.

이웃 日本에서는 戰後 出産率의 급격한 減少로 1947年과 1957年의 10年間에 人口 1,000名當 粗出産率이 34.5에서 17.2로 半으로 低下되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서 人工流産이 지적되고 있다(Figa-Talmamanca, 1970 ; Hayasaka, et al., 1970 ; Honda, 1977 ;

筆者 : 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Muramatsu, 1960, 1969, 1970, 1973; Suzumura, 1966). 특히 1948年 優生保護法(Eugenic Protection Law)이 制定된 以來 人工流産은 사실상 日本의 準人口政策이 되어, 1957年에는 出生 100件當 71.6件의 人工流産이 행해졌으며(Muramatsu, 1960 : 45), 1961年에는 可姙年齡婦人의 41%가 人工流産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Hayasaka, 1970 : 2).

우리나라에 있어서 戰後多出産期(postwar baby-boom)가 끝나는 1960年부터 1975年까지 合計出産率(total fertility rate)은 6.0에서 3.0으로 半減한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Lee-Jay Cho, 1979). 그 主要要因으로서는 社會·經濟與件의 變化에 따른 初婚年齡의 急上昇, 家族計劃에 의한 避姙方法의 普及 및 實施와 더불어 人工姙娠中絕이 지적되고 있다(李柄武, 1970). 우리나라에서 人工流産은 1960年代 初期부터 먼저 都市地域에서부터 차츰 農村地域으로까지 널리 행해지게 되었고, 당분간 그 實施率이 계속해서 增加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人工流産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종의 社會的 行爲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點에서 일상적 社會行爲와 다른 독특한 性格을 갖는다. 人工流産의 行爲結果는 子宮內胎兒의 殺害를 意味한다는 단순한 醫學的 側面 이외도 個別行爲關聯者와 家族, 그리고 所屬社會集團의 차원에서 心理的, 宗教的, 社會倫理的 側面의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時代 어느 社會에서나 程度의 차이는 있으나, 特定宗教, 出産行爲의 關聯社會規範, 人道主義的 立場에 따른 社會倫理 및 法律에 의하여 一般的으로 規制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면서 人工流産을 부분적으로나마 合法化하는 傾向이 增加하여, 世界 108個國 가운데 11個國만이 人工流産을 예외없이 禁止하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 97個國家에서는 事由에 따라 人工流産을 合法化하고 있다(Tietze, 1979).

이같은 人工流産의 自律化에 대한 法的 根據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點이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첫째, 姙婦의 生命 혹은 健康에 관한 醫學的 事由와, 둘째, 父母의 先天性 惡性遺傳, 胎兒의 損傷 등의 遺傳學的 根據, 세째, 强姦 혹은 近親相姦 등과 같은 社會的, 法律的 事由, 끝으로 子女의 養育과 福祉와 관련된 姙婦의 社會經濟的 理由로 區分할 수가 있다. 그러나 人工流産의 法的 自律化 움직임에 內在된 보다 根本的 理由는, Tietze가 설명한 바와 같이 첫째, 人工流産을 陽性化함으로써 無資格 醫療人에 의한 不法的 施術過程에서 흔히 있는 傷害와 死亡을 최소한 줄여 母子保健을 向上시키고자 하려는 努力, 둘째, 女性의 신체상 관련문제에 대한 女權伸張의 立場, 세째, 특히 人口成長이 급속한 開發途上國에서 出産率 減少策으로서 採擇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人工流産의 禁止 내지 法的 自律化에 대한 拒否反應은 保守主義的 集團, 가톨릭 혹은 回教 등의 宗教的 教理에 의한 경우와 일부 低出産國에서 人口減少를 막으려는 人口政策的 立場에서 人工流産의 制限措置를 하고 있다.

出産行爲와 관련하여 人工流産에 대한 社會規範은 社會·文化的 배경에 따라 다르다. 西洋的 倫理基準 및 宗教教理에 의하면 姙娠의 事前豫防과 姙娠後 胎兒의 人爲的 除去가 분명히 區分되지만, 日本의 東洋的 倫理觀 및 宗教觀은 避姙과 人工姙娠中絕의 限界를 區分하지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다(Taeber, 1979).

日本에서는 대체로 '産兒制限'(birth limitation)이라는 用語가 '避姙'(contraception)과 '落胎'(abortion)를 둘다 포함한 것으로 認識되어 왔다. 日本과 社會·文化的 배경이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家族計劃에 대한 敎育弘報活動과 避姙方法이 널리 普及되기 시작한 1960年代 以前에는 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겠다. 이같은 一般的 認識과 宗敎的, 社會的 배경으로 人工流産은 과거 日本과 최근 우리 나라에서 出産率低下의 중요한 要因으로 擡頭되고 있다. 그러나 人工流産에 대한 이러한 社會認識下에서도 人工流産 有經驗婦人의 대부분이 個人的으로 상당한 心理的 부담을 가지거나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Hayasaka, 1970).

최근 人工流産이 중요한 出産減少 要因으로 認定됨에 따라 이에 대한 硏究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경우 人工流産의 醫學的 側面이 아니면 出産率低下에 미친 人工流産의 效果 등 人口學的 分析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本 論文에서는 社會的 行爲로서의 人工流産에 대한 일반적 決定要因을 分析하고 우리나라 特有의 決定要因을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 出産率減少에 人工流産이 상당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人口學的 分析이 많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人工流産은 人口政策的 側面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本 硏究의 목적은 이러한 點을 고려하여 韓國의 出産率低下를 위한 人工流産側面에서 보다 적극적인 人口政策 및 母子保健政策에 대한 提言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使用資料에 의하여 分析內容은 다음과 같은 內在的 制約性을 가지고 있다. 첫째, 對象標本은 未婚女를 제외한 旣婚婦人의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다[1]. 둘째, 分析資料가 본래 人工流産 硏究目的으로 蒐集된 것이 아니어서 分析槪念과 선정된 變數간 一貫性이 다소 결여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한 理論的 說明力에는 어느 정도 異見이 提起될 수 있다. 세째, 特定年度(1974)의 橫斷分析資料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社會·經濟的 여건의 變化에 따른 人工流産行爲 및 그 決定要因의 變化形態에 대한 考察을 할 수 없다.

本 論文은 다음과 같이 構成되어 있다. 第Ⅱ節에서는 資料 및 分析方法, 특히 槪念的 分析模型을 設定하고 第Ⅲ節에서는 人工流産의 趨勢와 出産力 減少趨勢에 있어서의 人工流産要因의 역할을 分析하였다. 第Ⅳ節에서는 人工流産 被施術者의 人口學的 및 社會·經濟的 특성에 대해서 考察하였으며, 第Ⅴ節에서는 本 論文의 主題인 人工流産에 대한 要因分析을 試圖하였다. 第Ⅵ節에서는 以上에서의 分析을 토대로 政策的 建議點을 提示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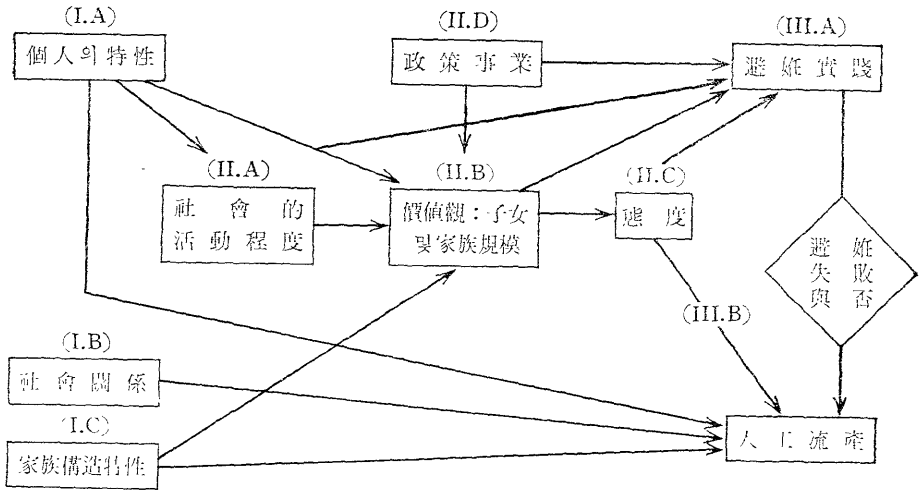
Ⅱ. 資料 및 分析模型

1. 資料 및 分析方法

本 論文의 使用資料는 世界出産力調査本部의 後援으로 經濟企劃院 統計局과 家族計劃硏究院이 공동으로 수집한 1974年度 世界出産力調

1) 최근 中都市 病院利用者를 對象으로 한 人工流産施術者의 資料分析에 의하면, 3,322名의 被施術者中 27%가 婚前姙娠中絶로 밝혀졌으며, 특히 30歲 未滿의 被施術者 1,591名中 59%가 未婚女性으로 推定되고 있다(林鍾權·崔富玉, 1979).

〔圖 1〕 人工姙娠中絕行爲의 槪略的 分析模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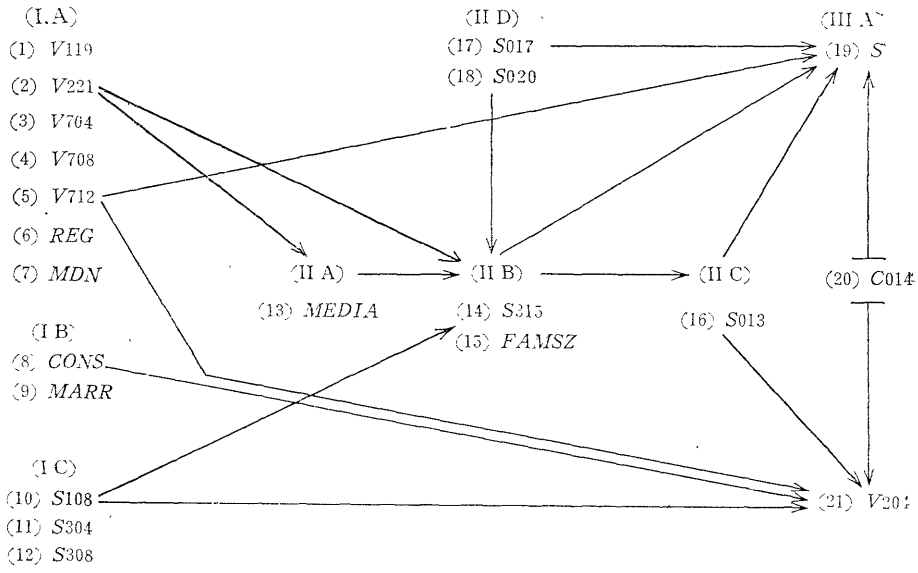
査資料이다. 이 資料는 全國的 標本調査로 家口調査標와 個人調査標로 構成되어 있으며, 家口調査資料는 農村과 都市地域에 각각 다른 集落抽出(clustered area sample) 方法을 적용하고 個別家口選定에는 系統抽出(systemic random sample)을 사용하여, 21,248家口를 選定하였으나 이 중 95.6%만이 성공적으로 調査되었다. 本 論文에 실제 사용된 標本은 상기한 標本의 1/3에 해당하는 5,724家口 중, 家口特性에 관한 몇가지 項目에 있어서 個人調査標와 해당 家口調査標를 統合(match)시키는 과정에서 5,419家口로 줄어들었다. 選定된 標本은 韓國既婚女性을 대표하는 標本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標本의 크기 또한 統計的 分析에 有意性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本 論文에서 이용한 統計的 分析方法은 크게 세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먼저 人工流産의 趨勢와 現況에 대하여는 人口分析에 사용하는 比(ratio) 혹은 比率(rate)을 사용하였으며, 人工流産被施術者의 特性分析에는 2變數 혹은 3變數統計表(cross-tabulation)를 이용하였다. 둘째, 出産率減少에 대한 人工流産의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Bongaarts가 고안한 方法을 사용하였다. 이 「본가르트」方法은 姙娠과 出産防止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出産關聯變數(intermediate fertility variables)로 分析하는 方法이다(Bongaarts, 1980). 끝으로 人工流産의 決定要因分析에서는 多分類分析方法(mu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을 채택하였다. 이 方法은 分散分析法(analysis of variance)의 한가지 變形으로서 사용된 대부분의 變數에 적합하며, 각 說明變數가 人工流産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지적해 줄 수 있는 長點이 있다.

2. 分析模型

人工流産은 결과적으로는 醫學的 行爲로 나타나지만, 일종의 社會的 行爲이므로 다른 一般的인 社會的 行爲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社會的 條件에 따른 일정한 規則性 아래 결정된다. 〔圖 1〕은 人工流産에 관련된 要因相互

〔圖 2〕 人工流產에 作用하는 要因間의 因果關係



間의 聯關關係를 明示한 것이다. 〔圖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人工流產은 被施術者의 人口學的, 社會·經濟的 側面에서의 個人的 特性과 社會關係 및 社會構造的 特性, 특히 家族構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子女 및 家族規模觀에 相應하는 態度와 避姙失敗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社會現象 및 社會的 行爲의 分析에 흔히 사용되는 統計的 相關關係는 變數間 關聯性의 程度는 나타낼 수 있으나, 因果關係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一般社會現象이나 社會行動에 있어서 因果關係는 대개의 경우 분명히 파악되지 않을 뿐아니라 실제 相互作用의 關係에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특정한 社會行爲에 있어서는 變數相互間의 關係가 분명하며 時間的으로 먼저 작용하는 變數를 原因(cause)으로 나중에 생긴 現象에 대해서는 結果(result)로 規定지을 수 있다. 또한 性, 年齡과 같은 歸屬的 特性(ascribed attributes)과 態度나 行爲關聯變數(behavioral variables)처럼 論理的 順位가 분명할 경우에는 關聯變數間의 因果關係를 비교적 명백히 規定지을 수 있다.

〔圖 1〕에서는 時間的 順位(temporal order)와 論理的 聯系(logical sequence)의 觀點에서 人工流產의 決定을 크게 3段階의 因果關係로 設定했다. 첫단계에서는 個人特性, 所屬集團 및 社會構造的 特性과 人工流產과의 關係이며, 다음 단계는 行爲者의 社會活動과 社會參與 및 政府施策에 의한 價値觀과 態度의 變化가 人工流產에 미치는 영향이며, 끝으로 避姙의 實踐過程이 人工流產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보았다.

〔圖 2〕는 〔圖 1〕에 對應하여 本 硏究에 사용된 代用變數(proxy variables)로 나타내 본 것이다. 個人的 特性을 나타내는 變數로서 結婚期間(*V*119), 生存아들數(*V*221), 婦人의 敎育程度(*V*704), 結婚前 職業關係(*V*714)등 7

가지의 變數와 夫婦間의 結婚狀態에 관한 2개의 變數를 사용하였으며, 集團 및 社會構造的 특성에 관한 變數로서는 家族構造性格을 나타내는 家族形態(*V*118), 親族의 壓力(*V*304) 및 家口主의 兄弟關係(*V*308)를 사용하였다. 社會參與에 관한 變數로서는 「매스 미디어」의 接觸頻度(*MEDIA*)를, 出產關係 價値觀으로서는 子女觀(*V*315)과 家族規模觀(*FAMSZ*)을, 政府施策에 대하여서는 「어머니會」의 參與度(*S* 017)와 家族計劃要員의 面談回數(*S* 020)를 代用變數로 設定하고 이들이 人工流產에 관한 態度(*S* 013)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假定하였다. 끝으로 人工流產에 대한 態度에 따라 避姙(*S*) 혹은 人工流產(*V*204)을 兩者 擇一하거나 避姙 失敗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택하는 것으로 假定했다.

Ⅲ. 人工流產의 最近傾向과 出產力에 대한 效果

지난 20年間 世界各國은 人工流產에 관한 合法化를 推進하여 왔다. 1978年 現在 極少數(108個國中 11個國) 國家에서만 이를 不法化하고 있으며(Tietze, 1979), 이들 國家에서도 人工流產에 대한 法的 措置가 엄격히 執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각 나라마다 人工流產에 대한 法律的 措置와 人工流產率의 정도가 다른 裏面에는 각 나라의 宗敎, 文化, 그리고 人口學的 배경에서의 차이가 있다. 첫째, 人間의 生命에 관한 宗敎的 見解差가 그 하나이다. 예컨대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 胎兒에 대한 生命觀은 醫學的 定義나 다른 宗敎圈의 그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둘째, '產兒制限'(birth limition)의 手段으로서 '避姙'(contraception)과 '姙娠中絕'(pregnancy termination)에 대한 文化·社會的 認識의 정도에 따른 차이이다. 세째, 人工流產의 政策的 의미는 各國의 人口學的 與件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즉, 현재 급속한 人口增加와 높은 人口密度를 가진 低所得 開發途上國들은 出產率을 낮추기 위하여, 한편 出產率이 비교적 낮은 先進國에서는 母子保健, 女性의 人權 및 社會正義의 立場에서 人工流產을 自由化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宗敎的으로 카톨릭 信徒가 少數이며 여타 宗敎에서는 人工流產을 보는 觀點에서 카톨릭과는 다르며, 대체로 人工流產을 避姙과 함께 產兒制限의 한가지 手段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政府에서는 소극적이나마 1973年 母子保健法에 의한 人工流產을 부분적으로 自由化시켜 왔다. 1973年 以前에도 人工流產을 刑法上 犯罪로 規定하였으나, 실제로 執行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이는 〈表 1〉에 제시된 人工流產에 대한 態度調査結果

〈表 1〉 地域別, 人工姙娠中絕의 合法性에 대한 認識

(단위 : %)

	全國	서울	其他都市	農村
非合法	33	43	32	28
不贊成	19	23	19	16
人工姙娠中絕使用與否	76	75	79	75
使用豫定	69	69	72	66
未確定	7	6	7	8
罪意識與否	57	69	60	47
조금느낌	38	44	45	29
상당히느낌	19	25	15	18

資料 : Hong and Watson(1976, Table V-7, 8 ; 1971 Fertility Abortion Survey)

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調査에 의하면 全體 應答者의 2/3 以上이 人工流産의 不法性을 모르고 있었으며, 應答者의 대부분이 法規에 관계없이 일단 원치 않은 姙娠을 하게 되면 人工流産을 택할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20% 以下의 應答者들만이 人工流産에 부정적 態度를 취한 反面, 실제로 人工流産을 경험한 應答者의 折半 以上은 道德的 罪意識 내지 心理的 負擔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表 2〉의 人工流産 推定資料에 의하면, 1963~73年間 人工流産은 年平均 약 11%로 增加하여 10年間 무려 3培로 急增하였다. 이는 15~44歲의 旣婚女性 100名當 1963年의 6名에서 1973年에는 30名이 人工流産을 경험한 바가 되며, 人當平均으로 볼 때는 1963年 0.72回에서 1973年에는 2.05回가 된다. 이와 같은 급속한 增加趨勢는 人工流産이 合法化되기 以前의 現象인 點이 주목할 만하다.

居住地域別, 婦人의 年齡別로 본 人工流産의 增加趨勢는 〈表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地域別 趨勢를 보면 都市地域의 合計人工流産率(total induced abortion rate)은 1960年代 初期에 1,000을 上廻한 反面, 農村地域에서는 當時의 都市地域에 비해 1/5의 水準에 머물렀다. 그러나 1960年代末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都市地域은 비교적 완만한 增加를 보여준 데 비해서, 農村地域에서는 年平均 17.9%로 계속 增加하여 1970年代 中半부터는 都農間의 合計人工流産率이 거의 같은 水準으로 漸近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各 年齡階級別로 본 人工流産率은 25~39歲 階級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15~24歲階級이 차지하는 比率이 1960年代 初期에서는 40~49歲階級에 비해 훨씬 낮았으나, 1970年代中半에 들면서 점차 거의 같은 水準으로 높아지는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이같이 20代와 30代女性들의 人工流産率이 높은 이유는 避姙의 失敗 등으로 인한 不願姙娠의 除去手段으로 人工流産을 택했으리라 추측된다.

出産率 減少에 있어서 人工流産의 寄與度를 보기 위하여 「본가르트」方法에 의해 出産率 低下를 各要因別로 分類해 보면, 初婚年齡의

〈表 2〉 年度別, 人工姙娠中絕推定(1963~76)

	中絕數	年增加率(%)	人工姙娠中絕率 15~44(%)	合計人工流産率 15~44(%)	出産에 대한 比
1963	139,000	—	6	0.72	0.1
1964	168,000	20.9	7	1.20	0.2
1965	210,000	25.0	11	1.20	0.2
1966	246,000	17.1	13	1.38	0.2
1967	258,000	4.9	14	1.29	0.2
1968	268,000	3.9	15	1.24	0.2
1969	307,000	14.6	19	1.50	0.3
1970	333,000	8.5	22	1.45	0.3
1971	327,000	−1.8	26	1.99	0.3
1972	375,000	14.7	27	1.98	0.4
1973	390,000	4.0	30	2.05	0.4
1976	482,000	7.3	38	2.46	0.7
1963~73	—	10.9	—	—	—

資料 : 家族計劃研究院, 『1978, 人口 및 家族計劃統計資料集』, 第1卷, p.329.

〈表 3〉 地域別, 年齡別 人工姙娠中絕率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1]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4[3]	1976[2]
全　國														
15～19	3.4	0.8	0.8	—	—	3.3	0.8	0.8	2.4	2.5	0.7	—	54.5	0.4
20～24	4.9	11.5	11.6	11.9	14.4	18.4	22.7	19.7	25.1	28.9	27.8	29.4	61.2	23.8
25～29	20.5	24.9	31.0	25.6	45.9	52.6	52.4	61.3	50.8	48.3	50.3	47.0	127.7	74.7
30～34	28.3	43.5	34.3	65.6	59.0	96.4	90.9	70.4	82.3	101.1	110.8	91.7	136.5	145.8
35～39	39.7	31.3	47.7	62.9	55.1	61.1	76.2	85.2	90.8	114.4	93.8	97.8	108.6	138.8
40～44	13.2	10.0	13.7	21.0	24.1	31.2	23.1	45.2	34.5	46.7	44.1	47.9	57.5	64.2
45～49	—	—	10.6	—	—	2.2	3.3	—	—	7.1	2.8	4.1	59.9	13.9
TAR	550	610	748	935	992	1,326	1,347	1,413	1,430	1,755	1,652	1,590	2,730	2,310
大都市（서울·釜山）														
15～19	11.6	—	3.6	—	—	6.7	3.4	—	10.2	3.5	—	—	153.8	—
20～24	13.4	29.9	21.7	21.5	24.8	50.4	47.8	39.0	34.7	26.7	40.1	44.7	101.4	31.4
25～29	45.9	61.5	96.6	26.0	70.5	133.9	115.4	82.3	73.0	82.6	62.0	69.9	162.4	90.6
30～34	37.6	112.7	52.0	160.5	126.3	193.9	174.4	149.8	164.5	145.4	174.1	179.5	160.6	195.2
35～39	110.0	100.0	116.1	145.2	82.6	127.8	190.1	129.9	104.9	142.1	102.0	107.7	99.7	146.3
40～44	18.2	27.4	22.5	76.1	71.4	80.0	18.2	89.3	80.7	74.4	22.6	21.1	43.7	71.7
45～49	—	—	—	—	—	—	—	—	—	10.2	—	—	—	8.3
TAR	1,184	1,658	1,562	2,146	1,878	2,964	2,746	2,452	2,340	2,424	2,004	2,114	3,608	2,720
其他都市														
15～19	—	—	—	—	—	—	—	—	—	6.0	—	—	—	—
20～24	3.3	19.2	19.5	10.0	13.8	23.4	10.1	21.8	17.9	43.0	46.4	46.7	62.9	28.9
25～29	40.5	38.3	—	35.3	48.3	78.0	56.9	73.5	104.2	93.3	86.2	66.9	127.0	74.0
30～34	58.5	53.9	53.1	65.4	56.8	108.1	123.4	129.4	107.8	152.5	143.8	99.0	184.4	153.5
35～39	87.0	58.1	56.2	112.3	82.9	92.7	78.4	111.1	144.9	214.0	139.6	140.4	148.1	172.9
40～44	10.9	—	17.0	8.6	36.8	43.5	45.2	50.6	53.5	57.0	78.1	53.9	33.9	48.5
45～49	—	—	—	—	—	—	—	—	—	—	14.5	19.4	7.8	7.8
TAR	1,001	848	906	1,223	1,342	1,623	1,653	2,086	2,087	2,794	2,446	2,100	2,821	2,430
農　村														
15～19	1.6	1.6	—	—	—	3.5	—	1.7	—	—	1.3	—	30.3	1.1
20～24	2.8	1.5	4.5	9.3	10.8	3.1	17.7	9.8	24.4	21.8	10.4	11.8	37.7	13.0
25～29	7.1	10.9	10.9	17.3	26.0	25.2	20.8	34.3	23.2	18.5	37.7	30.5	92.6	60.5
30～34	14.7	22.7	23.3	40.7	40.6	65.5	58.4	27.3	47.9	71.0	77.0	57.9	94.1	100.0
35～39	10.7	6.4	28.9	24.0	38.4	33.0	47.1	64.9	68.3	72.2	76.9	81.5	99.6	121.2
40～44	12.9	9.8	11.2	13.1	10.6	17.1	17.0	33.0	16.0	36.5	36.0	52.4	71.3	64.8
45～49	—	—	14.9	—	—	3.2	4.9	—	—	8.5	—	—	8.0	18.2
TAR	249	264	468	522	632	753	830	855	899	1,142	1,200	1,170	2,118	1,890

資料：1) 韓聖鉉, 『人工姙娠中絕에 관한 硏究』, 家族計劃硏究院, 1973.

2) 家族計劃硏究院, 『1976, 家族計劃事業評價調査』,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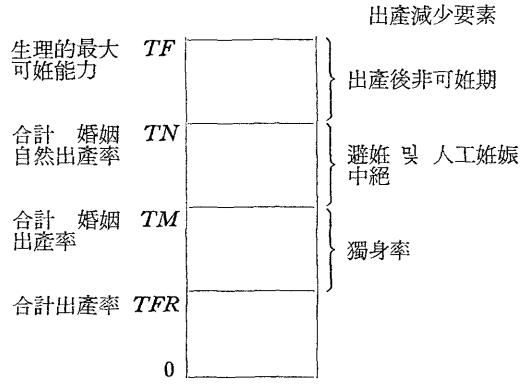
3) 1974 WFS 資料에서 拔萃.

上昇에 의한 婚姻率(proportion married)의 變化, 避姙, 人工流産, 그리고 出産後 非可姙期間(postpartum infecundability)으로 크게 區分할 수 있다(Bongaarts, 1980).

이 方法은 〔圖 3〕에 例示된 바와 같이 最大可姙能力(total fecundability rate; *TF*)에서 出産後 非可姙期間(postpartum infecundability)을 除함으로써 合計婚姻自然出産率(total natural marital fertility rate; *TN*)을 얻으며, 이로부터 避姙 및 人工姙娠中絶을 除함으로써 合計婚姻出産率(total marital fertility rate; *TM*)을 얻고, 여기서 다시 獨身率을 除함으로써 合計出産率(total fertility rate; *TFR*)을 算出하는 方法이다.

〈表 4〉는 위의 公式을 1960, 1970, 1974年의 3個年度에 적용하여 出産減少要因을 算出한 것이다. 該當年度에 대한 韓國女性의 平均生理的 最大可姙能力(*TF*)은 16.2로 假定하였

〔圖 3〕 4大出産減少要素 및 出産率測定



C_m=TFR/*TM*

$C_c \times C_a$=*TM*/*TN*

C_i=*TN*/*TF*

따라서 $TFR=C_m \times C_c \times C_a \times C_i \times TF$

以上의 式에서 4가지 指數의 內容은,

C_m =婚姻率指數(可姙期女性 全部가 結婚했을 경우 (1), 全體가 未婚일 경우는 (0))

C_a =人工流産指數(全體女性이 人工流産을 경험했을 때 (0), 人工流産이 전혀 없을 경우는 (1))

C_c =避姙指數(全體女性이 避姙使用할 경우 (0),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1))

C_i =出産後 非可姙期指數(出産과 同時에 즉시 姙娠할 경우 (1), 永久的 不姙性일 경우 (0))

資料 : Bongaarts(1980), 圖 1.

〈表 4〉 各 要因別 出産減少測定, 1960, 1970, 1974

(단위 : %)

出産率 \ 年度	1960	1970	1974	1960~70	1970~74	1960~74
TF	16.2	16.2	16.2	—	—	—
TN	9.072	10.692	10.962	17.9	1.6	19.7
TM_a=(with I.A.)	8.800	8.981	7.975	2.1	−11.2	−9.4
TM_c=with I. A. contra.)	8.536	6.826	5.599	−20.0	−18.0	−34.4
TFR	6.146	3.959	3.466	−35.6	−12.5	−43.6
$C_i=TF-TN$	7.128	5.508	5.338	−22.7	−3.1	−25.1
$C_a=TN-TM_a$	0.272 (9.3)	1.711 (25.4)	2.887 (39.0)	617.7	168.7	1,061.4
$C_c=TM_a-TM_c$	0.264 (9.0)	2.155 (32.0)	2.376 (32.1)	816.3	110.3	900.0
$C_a=TM_c-TFR$	2.390 (81.7)	2.867 (42.6)	2.133 (28.8)	120.0	−25.6	10.8
$A=TF-TFR$	10.054	12.241	12.734	121.8	104.0	126.7
$B=A-C_i$	2.926* (100.0)	6.733* (100.0)	7.396* (100.0)			

註 : * 出産後의 生理的 非可姙期를 除外한 出産減少部分

資料 : 한인숙(1980).

으며 合計出産率은 1960年에 6.1, 1970年에 4.0, 그리고 1974年에 3.5로 推定되고 있다.

結婚年齡, 避姙 및 人工姙娠中絕에 의한 出産減少는 1960年에 2.9, 1970年에 6.7, 그리고 1974年에는 7.4로 각각 크게 伸張되었음을 보인다. 要因別 構成比를 보면, 1960年에는 初婚年齡이 82%를 차지한 반면 人工流産 및 避姙의 효과는 20% 未滿에 머물었음을 보인다. 그러나 1970年에는 그간의 본격적인 家族計劃事業으로 避姙效果가 32%, 人工流産效果가 25.4%로 늘어난 반면 結婚年齡에 의한 減少는 42.6%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趨勢는 1974年에도 계속되어 結婚年齡效果는 29%로 더욱 떨어졌으며 避姙效果는 같은 水準인 32%에 머물었으나, 人工流産效果는 39%로 크게 伸張되어 1970年代 中半에 들면서 出産力減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Ⅳ. 人工流産의 現況과 特徵

1. 1974年度 人工流産 現況

〈表 5〉는 1974年度 世界出産力調査資料(*WFS*)에 나타난 居住地域別, 年齡別 人工流産率(*ASAR*)과 合計人工流産率(*TAR*)을 보이고 있다. 合計人工流産率은 2.73이며 地域別

〈表 5〉 地域別, 年齡別 婦人의 人工姙娠中絕率, 1974

(단위 : 1,000에 대한 比率)

年齡	中絕數	年齡集團의 婦人數	人工姙娠中絕率			
			全國	大都市(서울, 釜山)	其他都市	農村
15~19	3	55	55	154	—	30
20~24	34	556	61	101	63	38
25~29	149	1,167	128	162	127	93
30~34	147	1,077	137	161	184	94
35~39	111	1,022	109	100	148	100
40~44	50	869	58	44	34	71
45~49	4	673	6	—	8	8
計	498	5,419	2.73	3.61	2.82	2.12

〈表 6〉 敎育別, 年齡別 婦人의 人工姙娠中絕率, 1974

(단위 : 1,000에 대한 比率)

年齡	無就學	國卒	中卒	大卒以上
15~19	—	75	—	—
20~24	73	65	56	—
25~29	90	125	142	143
30~34	96	144	182	94
35~39	112	11	145	59
40~44	75	82	22	—
45~49	11	—	—	—
計	2,285	2,508	2,730	1,478

로 大都市는 3.6回, 農村地域은 2.1回로서 1.5回의 隔差를 보인다. 年齡階級別로는 25~34歲 階級이 전체의 62.2%, 25~39歲 階級이 88%를 占하고 있다. 그러나 大都市地域에서는 15~24歲 階級이 35%나 차지하여 農村의 16%에 비해 젊은 女性들의 人工流産經驗率이 훨씬 높음을 보인다.

〈表 6〉은 人工流産經驗率의 敎育程度別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一般的으로 敎育程度가 높아짐에 따라 人工流産率도 높아지는 傾向이 있으나 大學卒業者의 人工流産率은 敎育을 전혀 받지 못한 婦人들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年齡別로 보면 大學卒業者로서 24歲以上 階級에서는 人工流産을 경험한 應答者가 전혀 없으며, 25~29歲 階級이 合計人工流産率의 折半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代 初半期가 大學敎育關係로 대부분의 경우 未婦狀態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大學卒業者가 一般的으로 낮은 人工流産率을 보이는 이유는 效率的인 避姙方法에 대한 知識水準이 높은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人工流産當時의 平均姙娠期間은 2.4~2.9個月로서 個人別 특성에 따른 차이보다는 姙娠順位에 따른 차이가 크며 姙娠回數가 많을수록 人工流産時期를 일찍 選擇하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附表 2 參照).

2. 人工流産 受容者의 特性

本項에서는 人工流産의 初經驗婦人과 重複經驗婦人의 人口 및 社會學的 특성을 살펴 보기로 한다.

〈表 7〉에 의하면 平均年齡은 初經驗者가 34.4歲, 再經驗婦人이 36.9歲로서 非經驗婦人의 33.6歲에 비해서 높으며 標本의 比重面에서 初經驗婦人이 16%, 再經驗婦人은 14.3%를 차지하고 있다. 年齡階級別로는 35歲 未滿은 初經驗者 比率이 再經驗者에 비해 높은 반면에 35歲 以上에서는 그 反對로 나타나고 있다. 結婚期間에 있어서 初經驗者가 平均 13.5年인데 비하여 再經驗者는 16.6年으로 약 3年이 더 길며 結婚期間의 5年 未滿인 應答者의 11.6%가 初經驗者인 데 비해 再經驗者는 불과 2.5%였다. 그러나 結婚期間 10年 以上인 應答者는 初經驗者가 16.8%, 再經驗者 18.9%로서 再經驗者가 初經驗者보다 많았다.

姙娠回數面에서 볼 때 人工流産 非使用者가 平均 3.9回인 데 비하여 初經驗者는 5.0回, 再經驗者는 7.5回로서 再經驗者는 初經驗者보다 2.5回, 非使用者보다 3.6回 以上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현재 非使用者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此後 姙娠回數가 늘어남에 따라 人工流産을 經驗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姙娠回數와 마찬가지로 生存子女數도 人工流産決定에 다소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生存子女數는 初經驗者가 平均 3.4名, 再經驗者가 3.7名으로서 非使用者의 3.1名보다는 多少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生存子女數가 많을수록 人工流産經驗率도 당연히 높아지겠으나 子女數가 1名 이하인 경우에도 人工流産을 사용하는 경우가 發見되었다[2].

〈表 8〉에서는 人工流産初經驗者와 重複經驗者의 社會·經濟的 특성, 家族形態 및 男便의 家族觀과 人工流産에 대한 態度에 관하여 나

2) 生存子女가 없는 382名의 應答者中 12.6%가 1回의 人工流産을 經驗했으며, 2.5%가 再經驗을 했다. 이에 대한 이유는 表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健康狀態, 經濟的 要因 등에 의한 出産延期를 들 수 있겠다.

〈表 7〉 人工流産 初經驗婦人과 再經驗婦人의 人口學的 特性

特 徵	數			比 率		%		
	A (初經驗)	R (重複經驗)	T (標本總數)	A / T	R / T	A (初經驗)	R (重複經驗)	T (標本總數)
1) 婦人의 年齡								
計	868	775	5,419	16.0	14.3	100.0	100.0	100.0
24歲 以下	55	16	611	9.0	2.6	6.3	2.1	11.3
25～28歲	190	87	1,167	16.3	7.5	21.9	11.2	21.5
30～34歲	213	165	1,077	19.8	15.3	24.5	21.3	19.9
35～29歲	189	229	1,022	18.5	22.4	21.8	29.5	18.9
40～44歲	146	176	869	16.8	20.3	16.8	22.7	16.0
45歲 以上	75	102	673	11.1	15.2	8.6	13.2	12.4
平均年齡	34.4	36.9	34.2					
			33.6(非使用婦人)					
2) 結婚期間								
計	868	775	5,419	16.0	14.3	100.0	100.0	100.0
5年 以下	139	30	1,195	11.6	2.5	16.0	3.9	22.1
5～9年	193	141	1,024	18.8	13.8	22.2	18.2	18.9
10年 以上	536	604	3,200	16.8	18.9	61.8	77.9	59.1
平均期間	13.5	16.6	13.6					
			13.1(非使用婦人)					
3) 姙娠回數								
計	868	775	5,419	16.0	14.3	100.0	100.0	100.0
0回	0	0	151	0.0	0.0	0.0	0.0	2.8
1回	22	0	457	4.8	0.0	2.5	0.0	8.4
2回	55	5	647	8.5	0.8	6.3	0.6	11.9
3回	155	14	812	19.1	1.7	17.9	1.8	15.0
4回	152	34	772	19.7	4.4	17.5	4.4	14.2
5回	162	117	755	21.5	15.5	18.7	15.1	13.9
6回以上	322	605	1,825	17.6	33.2	37.1	78.1	33.7
平均回數	5.0	7.5	4.6					
			3.9(非使用婦人)					
4) 生存子女數								
計	868	775	5,419	16.0	14.3	100.0	100.0	100.0
0名	48	10	382	12.6	2.6	5.5	1.3	7.0
1名	75	39	771	9.7	5.1	8.6	5.0	14.2
2名	177	94	924	19.2	10.2	20.4	12.1	17.1
3名	170	237	1,024	16.3	22.7	19.6	30.6	19.3
4名	178	185	964	18.5	19.2	20.5	23.9	17.8
5名以上	220	210	1,333	16.5	15.8	25.3	27.1	24.6
平均子女數	3.4	3.7	3.2					
			3.1(非使用婦人)					

〈表 8〉 人工流産初經驗女性 및 再經驗女性의 社會·經濟的 特性, 家族形態 및 態度

(1) 敎 育 程 度

特 徵	數			比 率		%		
	A (初經驗)	R (重複經驗)	T (總 計)	A / T	R / T	A (初經驗)	R (重複經驗)	T (總 計)
計	865	773	5,411	16.0	14.3	100.0	100.0	100.0
無 學	125	103	1,133	11.0	9.1	14.5	13.3	20.9
國 卒	415	385	2,715	15.3	14.2	48.0	49.8	50.2
中 高 卒	292	254	1,425	20.5	17.8	33.8	32.9	26.3
大 學	33	31	138	23.9	22.5	3.8	4.0	2.6

(2) 職 場 의 位 置

計	866	771	5,397	16.0	14.3	100.0	100.0	100.0
집 에 서	360	263	2,410	14.9	10.9	41.6	34.1	44.7
無 職	350	337	2,138	16.4	15.8	40.4	43.7	39.6
집과 다른 곳에	156	171	849	18.4	20.1	18.0	22.2	15.7

(3) 家具生活用器(TV, 냉장고)

計	858	769	5,345	16.1	14.4	100.0	100.0	100.0
0	542	434	3,965	13.7	10.9	63.2	56.4	74.2
1	243	246	1,100	22.1	22.4	28.3	32.0	20.6
2	73	89	280	26.1	31.8	8.5	11.6	5.2

(4) 家 族 形 態

計	865	772	5,406	16.0	14.3	100.0	100.0	100.0
核 家 族	324	320	1,986	16.3	16.1	37.5	41.5	36.7
媤父母 同居中	159	119	1,198	13.3	9.9	18.4	15.4	22.2
媤父母同居經驗	382	333	2,222	17.2	15.0	44.2	43.1	41.1

(5) 追加로 원하는 子女數

計	868	775	5,419	16.0	14.3	100.0	100.0	100.0
追 加 子 女	116	39	1,192	9.7	3.3	13.4	5.0	22.0
追 加 不 願	562	549	2,885	19.5	19.0	64.7	70.8	53.2
未 決 定	2	1	54	3.7	1.9	0.2	0.1	1.0
非 該 當	188	186	1,288	14.6	14.4	21.7	24.0	23.7

(6) 人工流産에 대한 態度

計	868	775	5,418	16.0	14.3	100.0	100.0	100.0
贊 成	417	409	2,587	16.1	15.8	48.0	52.8	47.7
反 對	333	273	1,781	18.7	15.3	38.4	35.2	32.9
경우에 따라	104	85	772	13.5	11.0	12.0	11.0	14.2
모 름	14	8	278	5.0	2.9	5.0	1.0	5.1

타내고 있다. 人工流産使用率은 敎育程度에 비례하며, 初經驗率은 不就學 11.0%, 國卒 15.3%, 中·高卒 20.5%, 大卒 23.9%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婦人의 就業經驗에서는 家事와 겸할 경우 14.9%의 初經驗率과 10.9%의 重複經驗率을 나타내며, 家事와 分離된 職業女性의 경우는 初經驗率 18.4%, 重複經驗率 20.1%로 女性의 就業性格이 人工流産使用程度에 상당히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經濟的 側面에서 文化用品의 所有程度, 즉, 生活水準이 높을수록 人工流産使用率도 높아지며, 生活水準이 높은 家庭에서는 初經驗率이 26.1%이나 重複經驗率은 31.8%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家族構造形態別로 媤父母를 모시고 있는 直系擴大家族을 가진 婦人들은 初經驗率 13.3%, 重複經驗率 9.9%이나 核家族婦人들은 初經驗率과 重複經驗率이 16%로 多少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男便이 追加子女를 원하는 경우 9.7%의 初經驗率과 3.3%의 重複使用率을 나타내나 追加子女를 더 원하지 않는 경우는 훨씬 높은 19.5%의 初經驗率과 19.0%의 重複使用率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人工流産에 대한 態度는 실제 人工流産使用與否와 분명한 關聯性을 보여 주고 있지 않는 것이 注目할만 하다.

V. 人工流産의 決定要因

1. 人工流産의 直接的 動機

未婚女性의 경우와는 달리 旣婚女性의 人工流産 動機는 家族計劃關聯動機와 其他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家族計劃關聯動機로는 出産터울調節, 子女數의 제한을 들 수 있고, 其他動機로서는 姙婦의 健康問題, 結婚生活의 不和 등의 이유를 들 수 있겠다.

〈表 9〉에 따르면 總標本의 1.7%가 婚前姙娠에 의한 人工流産, 77.5%가 生存子女數가 希望子女數를 超過한 家族計劃關聯事由에 의한 것이다. 이를 다시 子女數 制限目的과 터울調節을 區分해 보면 1 : 4의 비로 後者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生存子女數가 希望子女數에 未達하여 追加子女를 願하는 2,132名의 婦人 가운데 687名이 人工流産을 經驗하였는데 이는 전체 人工流産件數의 21%로서

〈表 9〉 旣婚婦人(15~49歲)의 人工姙娠中絕의 內容別 分類

內 容	人工姙娠中絕數	分布(%)
結婚前에 姙娠한 경우	56	1.7
希望子女數보다 많은 경우	2,543 (3,287)	77.5 (100.0)
出産 터울 調節	2,043	62.3 (80.3)
子 女 數 制 限	500	15.2 (19.7)
希望子女數보다 같거나 혹은 적은 경우	687 (2,132)	20.9
合 計	3,280 (5,419)	100.0

〈表 10〉 出産順位別 터울目的 人工流産

出 産 順 位	人工姙娠中絕數	百分率(%)	累積百分率(%)
첫임신~둘 째	1,059	51.83	51.83
둘 째~세 째	491	24.03	75.86
세 째~네 째	239	11.70	87.56
네 째~다섯째	115	5.63	93.19
다섯째~여섯째	66	3.23	96.42
여섯째~일곱째	34	1.66	98.08
일곱째~여덟째	23	1.13	99.21
여덟째~아홉째	16	0.78	99.99
合 計	2,043	100.00	(99.99)

姙婦의 健康上, 불안정한 結婚狀態 등의 事由로 생각할 수 있다.

家族計劃의 터울調節로 推定된 人工流産의 경우를 出産順位別로 細分해 보면 〈表 10〉과 같다. 전체 2,043件 중 52%가 첫 出産과 둘째出産 사이의 姙娠中絶로 가장 많고, 以後의 出産順位別로는 24.0%, 12%, 6%로서 出産順位가 하나씩 높아짐에 따라 人工流産經驗率은 거의 半減하는 趨勢를 보여주며, 다섯째出産順位上에서 93% 以上의 人工流産經驗率을 보여 주고 있다. 以上에서 미루어 볼 때 韓國女性들은 주로 育兒的, 合理的 結婚生活을 위한 터울調節로 人工流産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人工流産의 決定要因分析

本項에서는 앞서 논한 諸特性과 人工流産行爲와의 個別的이고 相互平面的關係를 第Ⅱ節에 提示한 人工流産의 理論的 槪念模型에 의하여 分析하고자 한다.

〔圖 2〕에 사용된 變數의 대부분이 非連續變數(non-interval variables)여서 多分類分析方法(MCA)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21個의 變數中 5個 이내의 說明變數와 5個 이내의 統制變數(control variables)로 이루어지는 11個의 MCA 方程式으로 設定하였다. 從屬變數의 設定은 槪念模型의 變數 相互間 因果順位에 따랐다. 예컨대 式(1)에서 人工流産變數(*V* 204)는 避姙成敗(*C* 014), 家族規模觀(*FAMSZ*), 婦人의 敎育程度(*V* 704), 生存아들數(*V* 221), 家族形態(*S* 108)와 函數關係에 있다(表 11 參照). 영향력에 대한 統計的 有意性은 多分類分析表(MCA table) 이외에 分散分析法(ANOVA)으로 檢定하였다.

〈表 12-1〉은 式(1)의 推定結果를 나타낸다. 5個의 說明變數에 의한 說明力은 18.4%, 4個의 統制變數를 이에 追加할 때 22.7%이다. ANOVA檢定에 의하면 子女觀(*FAMSZ*)을 제외한 모든 變數가 統計的(*F*-score)으로 有意的임을 보인다. 各說明變數別 영향을 볼 때 避姙의 成敗如何(*C* 014)가 가장 중요한 것으

〈表 11〉 多分類分析의 函數式과 사용된 變數

被說明變數	說明變數		統制變數
(1) *V* 204	= *f*(*C* 014, *FAMSZ*, *V* 704, *V* 221, *S* 108)	:	*S*, *REG*, *MEDIA*, *V* 119
(2) *V* 204	= *f*(*S*, *MEDIA*, *REG*, *BWRK*, *S* 108)	:	*C* 014, *V* 119, *V* 704
(3) *V* 204	= *f*(*C* 014, *S* 013, *S* 017, *S* 020, *FAMSZ*)	:	*S*, *REG*, *V* 704, *V* 119, *MEDIA*
(4) *C* 014	= *f*(*V* 704, *REG*, *MEDIA*, *S* 020, *S* 017)	:	*S*, *V* 119
(5) *S*	= *f*(*FAMSZ*, *S* 315, *S* 304, *S* 309, *V* 221)	:	*V* 119, *REG*, *V* 704, *BWRK*
(6) *S*	= *f*(*FAMSZ*, *BWRK*, *SWRK*, *V* 704)	:	*V* 119, *REG*, *S* 017, *S* 020
(7) *S*	= *f*(*S* 304, *V* 221, *REG*, *V* 704, *S* 017)	:	*V* 119, *MEDIA*
(8) *FAMSZ*	= *f*(*V* 704, *REG*, *V* 221, *S* 108, *S* 304)	:	*V* 119, *MEDIA*
(9) *FAMSZ*	= *f*(*V* 704, *BWRK*, *MEDIA*, *S* 107, *S* 108)	:	*V* 119, *REG*
(10) *V* 204	= *f*(*CONS*, *MARR*, *REG*, *MDN*)	:	*V* 704, *V* 119
(11) *MEDIA*	= *f*(*V* 704, *REG*, *MDN*, *BWRK*, *SWRK*)	:	

註 : 上記 變數는 〈附表 1〉에 定義되어 있음.

로 나타나 避姙에 失敗한 婦人들은 58%, 그렇지 않은 婦人들은 19%가 人工流産을 경험하고 있어 避姙成敗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避姙成敗變數의 중요성은 餘他變數의 영향을 統制하고 난 후에도 32% 차이를 보여 크게 삭감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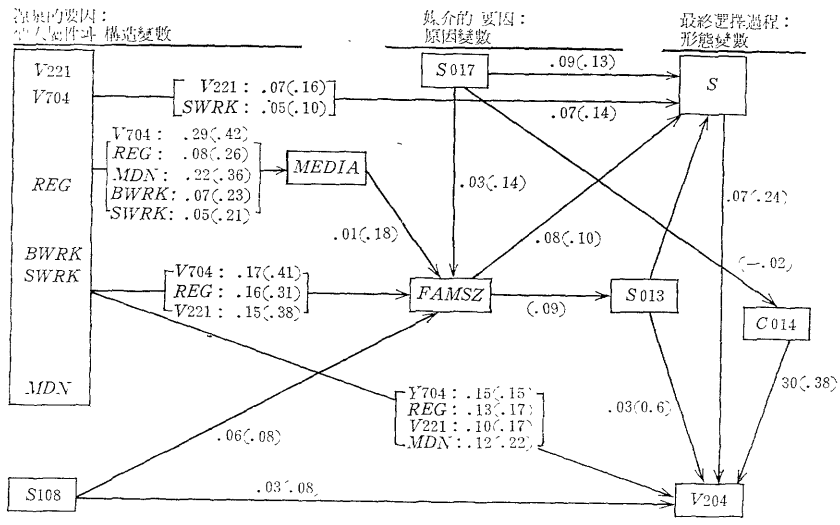
家族規模觀(*FAMSZ*)은 2 子女 以下 25%, 4 子女 以上 32%로 그 차이는 7%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餘他變數등을 統制하였을 때 그 차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婦人의 敎育程度面에서는 無敎育이 20%, 初等敎育程度는 29%, 그리고 中等 以上의 敎育水準에서는 39%의 人工流産經驗率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變化의 幅은 그리 크지 않으나 核家族이나 媤父母를 모시고 있는 擴大直系家族이냐에 따른 차이는 後者가 23%로서 前者보다 9% 낮다. 이는 우리나라 媤父母들의 多子女選好性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希望子女數에 대한 子女價値觀(*FAMSZ*)은 人工流産使用決定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統計的 有意性도 갖지 못하고 있다. 한편 婦人의 人工流産에 대한 態度(*S* 013)는 人工流産使用率에 有意的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要因의 영향과 比較할 때는 多少 낮다.

〈表 12-2〉의 推定結果는 人工流産使用率에 있어서 直接的要因의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避姙經驗이 있는 標本의 人工流産使用率은 避姙經驗이 없는 標本보다 25% 더 높으나 다른 要因을 統制한 後의 純影響은 8%로 줄어든다. 居住地域에 따라서는 大都市 41%, 其他都市 33%, 그리고 農村地域은 22%로 大都市와 農村間 19%의 격차를 보이나 다른 要因을 統制하면 14%로 줄어든다. 한편 「매스콤」의 接觸度(*MEDIA*)에 따른 차이는 新聞, *TV*를 접하는 婦人들은 43%인 데 반하여 전혀 접하지 않는 婦人들은 20%로서 그 차이가 상당히 크지만, 역시 다른 要因을 統制하면 10%로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職業別隔差는 農業 23%, 非農業이 33%를 보이나 그 純效果는 5%에 그칠 따름이다.

式(4) 以上의 推定結果는 〈附表 3〉에 收錄된 바와 같으며 各式의 純影響力面에서 중요한 變數에 대해서 논하면 다음과 같다. 式(4)에서 避姙成敗(*C* 014)는 敎育水準(*V* 704), 住居地域(*REG*), 「매스콤」의 接觸度(*MEDIA*), 家族計劃要員의 訪問與否(*S* 020), 「어머니會」參席與否에 有意的으로 영향을 받으며 餘他變數를 統制한 純效果面에서, 敎育水準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式 (5), (6), (7)에서 避姙成敗(*S*)는 家族規模觀(*FAMSZ*), 敎育水準(*V* 704), 「어머니會」參席與否(*S* 017) 등에 의하여 左右되며 式 (8), (9)에서 家族規模觀(*FAMSZ*)은 敎育水準(*V* 704), 住居地域(*REG*), 生存아들數(*V* 221), 家族形態(*S* 108), 職業(*BWRK*), 「어머니會」參席與否(*S* 017)에 의하여 決定됨을 보인다. 式(10)의 避姙使用與否(*V* 204)와 式(11)의 「매스콤」의 接觸度(*MEDIA*)는 生活程度를 代辯할 수 있는 文化用品의 數(*MDN*)에 의하여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以上의 11個式의 결과를 앞서 提示한 人工流産決定의 槪念模型에 따라 나타내면 〔圖 4〕와 같다. 圖에 表示된 영향력의 程度는 相關係數(*R*)에 準하는 η 값과 純相關係數에 準하는 β 값으로 나타내며, 表示된 變數는 統計的 有意性(*F*-test)을 갖는 것에 限定하였다. 人工流産使用率에 대하여 가장 영향력이 큰 變

[圖 4] 人工流産의 決定要因間의 因果關係



註 : 숫지는 β, ( ) 內의 숫지는 ε의 값을 나타냄.

〈表 12-1〉 式(1)의 MCA 推定結果

	標本數	α_1	α_2	α_3	F-score
全體平均		.30			
避姙成敗 (C 014)		(.38)[1]	(.34)[2]	(.30)[3]	997.99
失敗以外의 事由	3,932	.19	.20	.21	
失敗	1,474	.58	.56	.53	
家族規模觀 ($FAMSZ$)		(.07)	(.03)	(.02)	1.39
2 子女以下	1,601	.25	.28	.31	
3 子女	1,338	.32	.30	.31	
4 子女以上	2,469	.32	.31	.29	
敎育水準 (V 704)		(.15)	(.17)	(.15)	76.61
無學	1,130	.20	.19	.19	
初等學校	2,709	.29	.28	.30	
中等學校以上	1,567	.39	.41	.39	
生存아들數 (V 221)		(.17)	(.13)	(.08)	98.65
없음	1,049	.14	.18	.23	
1名 以上	4,357	.34	.33	.32	
家族形態 (S 108)		(.08)	(.07)	(.03)	36.34
直系擴大家族	4,208	.32	.32	.31	
核家族	1,198	.23	.24	.27	
Multiple R^2			.184	.227	
人工流産에 대한 態度 (S 013)[4]		(.06)	(.05)	(.03)	15.22
不贊成	3,637	.34	.33	.32	
贊成	1,781	.28	.28	.29	

註 : 1) 單純階級平均의 η 값.
2) 獨立變數調整平均의 β 값.
3) 獨立, 統制數變調整平均의 β 값.
4) 式(3)에서의 推定値임.
α_1은 單純階級平均(unadjusted deviation), α_2는 獨立變數調整平均(adjusted for independents variables)이고, α_3는 獨立, 統制變數調整平均(adjusted for independents plus control variables)임.

數는 避姙成敗(C 014)이고, 避姙成敗는 다시 家族計劃要員의 訪問, 「어머니會」參與를 통한 避姙知識과 家族計劃 敎育程度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家族計劃事業은 人工流産의 使用與否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避姙失敗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人工流産行爲에 영향을 미친다.

婦人의 人口學的, 社會·經濟的 특성은 人工流産使用與否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希望子女數와 家族規模에 대한 價値觀形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人工流産行爲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家族構造形態 역시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子女觀, 人工流産에 대한 態度形成과 家族計劃實施를 통하여 2次 내지 3次的으로 영향을 미친다.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人工流産行爲는 결코 行爲者의 意思뿐만 아니라 다른 社會的 行爲와 마찬가지로 社會·經濟的 要因 및 社會構造的 要因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다.

Ⅵ. 結論 및 政策建議

人工流産은 최근의 現象이 아니라 어느 時代 어느 社會에서도 그 필요성이 認識되고 遂行되어져 왔다. 그러나 人工流産은 宗敎的, 社會倫理的, 그리고 法的인 側面에서 禁止되거나 制裁를 받아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73年 母子保健法이 制定되기 以前에는 刑法에 의하여 犯罪로 規定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年代初부터 漸增하여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出産力減少要因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에 따

〈表 12-2〉 式(2)의 MCA 推定結果

	標本數	α_1	α_2	α_3	F-score
全體平均		.30			
避姙使用與否 (*S*)		(.24)[1]	(.23)[2]	(.07)[3]	387.05
無經驗	1,281	.11	.11	.24	
有經驗	4,125	.36	.36	.32	
「매스콤」의 接觸度(신문, TV) (*MEDIA*)		(.12)	(.07)	(.04)	47.84
신문, TV 매일 접함	773	.43	.37	.33	
가끔 접함	4,263	.29	.29	.30	
전혀 접하지 않음	370	.20	.22	.23	
住居地域別 (*REG*)		(.19)	(.15)	(.13)	81.30
大都市(서울, 釜山)	1,627	.41	.39	.38	
其他都市	1,197	.33	.32	.33	
農村	2,582	.22	.23	.24	
職業別 (*BWRK*)		(.08)	(.05)	(.04)	7.22
農業	1,290	.23	.27	.27	
일한적 없음	2,684	.32	.32	.30	
非農業	1,432	.33	.30	.32	
家族形態 (*S* 108)		(.08)	(.03)	(.03)	6.45
直系擴大家族	4,208	.32	.31	.31	
核家族	1,198	.23	.27	.28	
Multiple R^2			.096	.224	

註 : 〈表 12-1〉 參照.

라 人工流産에 관한 硏究가 상당히 활발했으나 그 대부분이 醫學的 關心 혹은 出産減少에 미친 人口學的 效果分析에 치우친 傾向이 있었다.

本 論文에서는 人工流産을 일종의 특수한 社會的 行爲로 보고 社會學的 觀點에서 그 決定要因을 分析하는 데 목적을 두고, 人工流産의 최근 傾向과 現況 및 그 특징을 考察하고 그 決定要因을 分析하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최근 우리나라 人工流産率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서, 이는 法的인 側面에서의 차이보다는 宗敎·社會·文化的 側面에서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人工流産을 적극적으로 反對하는 立場의 가톨릭信徒가 차지하는 比重이 적을 뿐 아니라 人工流産에 대한 態度나 使用率에 있어서 宗敎的 要因에 의한 作用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社會·文化的인 側面에서는 최근까지 人工流産에 대한 社會的 認識이 西歐 基督敎文化圈에서와는 달리 出産制限手段으로서의 避姙과 명확한 區分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産業化와 都市化로 인한 子女觀, 家族規模觀에 대한 價値觀의 變化로 不願姙娠을 除去하는 手段으로 人工流産이 蔓延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人工流産은 人口學的, 社會·經濟的인 個人的 특성 및 家族形態의 構造的 특성에 의하여서는 물론 家族計劃事業 內容의 充實性에 支配를 받는 避姙方法의 效率性 및 避姙成敗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出産調節政策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政策的 建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家族計劃事業의 一環인 避姙方法에 대한 啓蒙에 더욱 力點을 두어야 하겠다. 分析結果에 의하면 人工流産을 사용하는 가장 큰 要因은 避姙失敗로 나타났다. 둘째, 家族計劃事業內容에 있어서 避姙方法의 普及, 不姙施術뿐만 아니라 人工流産에 대한 啓蒙 및 不願姙娠에 대한 專門醫와의 相談, 施術이 용이하게끔 보다 적극적으로 人工流産을 出産調節政策에 反映하여야 하겠다. 세째, 이와 관련하여 人工流産이 부득이한 경우 家庭形便에 따라 經費補助는 물론 철저한 家族計劃啓蒙을 통해 人工流産의 重複使用을 줄여야 하겠다. 네째, 現行 母子保健法에서 部分的으로 合法化되고 있지만 실제 人工流産의 대부분이 不願姙娠의 除去手段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社會經濟的 事由에 의해서도 合法化될 수 있게끔 法的 自由化의 폭을 넓혀야겠다. 왜냐하면 不願姙娠의 경우 대부분이 人工流産을 하지만 상당수의 經驗者가 罪意識, 羞恥心 등의 心理的 負擔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法的 自由化의 폭을 넓히면 人工流産 被施術者뿐 아니라 施術者에게도 이러한 負擔을 덜어 주며, 專門醫의 指定으로서 여태까지의 陰性的 施術로 인한 副作用을 줄여 母子保健에도 상당히 寄與할 수가 있을 것이다.

〈附表 1〉 多分類分析(MCA)에 사용한 變數

變數	內容					
	1	2	3	4	5	6
Ⅰ. 個人的 特性						
年齡(*V* 011)	24歲以下	25～29歲	30～34歲	35～39歲	40～44歲	45歲以上
結婚期間(*V* 119)	5 年	5～9年	10年以上			
生存아들數(*V* 221)	없음	1名 以上				
敎育水準(*V* 704)	無學	初等學校	中等學校 以上			
結婚前의 職業(*V* 708)	經驗없음	農業	非農業			
結婚前의 職場所在(*V* 712)	집에서	집의 다른 곳	일한 적 없음			
文化用品의 數(TV, 冷藏庫)(*MDN*)	하나도 所有하지않음	둘 중 하나만 所有	둘 다 所有			
避姙成敗(*C* 014)	失敗以外의 事由	失敗				
Ⅱ. 夫婦生活狀態						
希望子女數에 대한 夫婦間의 意見 一致與否(*CONS*)	一 致 함	未確定임	不一致함			
結婚生活의 安定度(*MARR*)	正 常 的 結婚生活	離婚, 再婚 및 別居				
Ⅲ. 家族構造의 特性						
家族形態(*S* 108)	直系擴大家族	核 家 族				
出產에 대한 親族의 壓力(*S* 304)	있 음	없 음				
男便의 兄弟狀態(*S* 309)	외아들	多兄弟				
Ⅳ. 社會活動狀態						
「매스콤」의 接觸度(신문, TV)(*MEDIA*)	신문, TV 매일접함	가끔접함	전혀접하지 않음			
「어머니會」參席與否(*S* 017)	없 음	있 음				
家族計劃要員의 訪問與否(*S* 020)	없 음	있 음				
Ⅴ. 態度, 價値觀						
子女에 의한 老後保障期待 與否(S 315)	확 실 히 期 待	다소期待	期待하기 힘 든 다	전혀 期待하지 않음		
家族規模觀(*FAMSZ*)	2子女 以下	3子女	4子女 以上			
人工流產에 대한 態度(*S* 013)	不贊成	贊 成				
Ⅵ. 家族計劃						
避姙使用與否 (*S*)	無經驗	有經驗				
人工流產經驗與否(*V* 204)	없 음	있 음				
Ⅶ. 其 他						
住居地域別(*REG*)	大都市 (서울, 釜山)	其他都市	農 村			
職業別(*BWRK*)	農 業	일한적없음	非農業			

〈附表 2〉 姙娠順位別 人工流產當時의 姙娠期間

(단위 : 個月)

區分 \ 姙娠順位	첫 姙娠	둘 째	세 째	네째 以上
總 計	2.92(1,440)	2.91(838)	2.81(450)	2.55(492)
居住地域別	(1,440)	(838)	(450)	(492)
大都市(서울, 釜山)	2.81(593)	3.01(378)	2.95(238)	2.52(254)
其他都市	3.07(352)	3.00(208)	2.51(122)	2.57(140)
農村	2.95(495)	2.69(252)	2.81(100)	2.64 (98)
年 齡	(1,440)	(838)	(450)	(492)
24歲 以下	3.13 (67)	2.94 (16)	2.75 (4)	3.00 (1)
25~29歲	2.74(255)	2.62 (97)	2.38 (45)	2.61 (31)
30~34歲	2.78(344)	2.60(177)	2.59 (85)	2.61 (67)
35~39歲	2.85(355)	2.70(252)	2.57(142)	2.55(156)
40~44歲	3.25(268)	3.17(189)	2.55(105)	2.43(159)
45歲 以上	3.02(151)	3.72(107)	4.26 (69)	2.74 (78)
職場의 所在	(1,435)	(834)	(449)	(491)
집에서	2.88(529)	2.97(303)	3.36(151)	2·54(163)
집의 다른 곳	2.87(290)	2.70(169)	2.53(114)	2.50(120)
無經驗	2.98(616)	2.95(362)	2.54(184)	2.60(208)
敎育水準	(1,437)	(836)	(488)	(487)
無學	3.08(199)	3.68(113)	4.59 (54)	2.92 (69)
初等學校	3.00(701)	2.91(416)	2.62(215)	2.51(216)
中等學校	2.76(480)	2.64(274)	2.53(158)	2.52(182)
大學以上	2.65 (57)	2.55 (33)	2.23 (21)	2.60 (20)
시부모와의 同居 與否	(1,434)	(835)	(449)	(492)
非同居	2.83(569)	2.64(344)	2.58(185)	2.54(213)
現在同居	2.84(243)	2.74(131)	2.58 (57)	2.63 (67)
過去同居	3.04(622)	3.23(360)	3.09(207)	2.56(212)
生存子女數	(1,440)	(838)	(450)	(492)
2名以下	2.86(403)	2.78(159)	2.54 (80)	2.55 (71)
3名	3.04(360)	2.95(244)	2.40(141)	2.43(158)
4名 以上	2.89(677)	2.94(435)	3.16(299)	2.64(263)

註 : ( )는 標本數임.

〈附表 3-1〉 式 (4)의 MCA 推定結果

區 分	標本數	α_1	α_2	α_3	F-score
全體平均		.27			
敎育水準 ($V704$)		(.06)[1]	(.05)[2]	(.10)[3]	10.42
無學	1,132	.22	.24	.18	.29
初等學校	2,714	.29	.29	.30	
中等學校以上	1,569	.27	.26	.29	
住居地域別 (*REG*)		(.03)	(.05)	(.03)	3.63
大都市(서울, 釜山)	1,630	.29	.30	.29	
其他都市	1,199	.25	.26	.25	
農村	2,586	.27	.26	.27	
「매스콤」의 接觸度 (신문, TV) (*MEDIA*)		(.03)	(.03)	(.02)	3.27
신문, TV 매일 접함	774	.30	.30	.29	
가끔접함	4,269	.27	.27	.27	
전혀 접하지 않음	372	.24	.25	.24	
家族計劃要員의 訪問與否(S 020)		(.10)	(.07)	(.06)	59.53
없음	4,214	.25	.25	.26	
있음	1,201	.35	.33	.32	
「어머니會」參席與否 (S 107)		(.14)	(.12)	(.07)	91.74
없음	4,303	.24	.24	.26	
있음	1,112	.39	.38	.33	
Multiple R^2			.029	.144	

註 : 1) 單純階級平均의 η 값.
2) 獨立變數調整平均의 β 값.
3) 獨立, 統制變數調整平均의 β 값.
α_1은 單純階級平均(unadjusted deviation), α_2는 獨立變數調整平均(adjusted for independents variables)이고, α_3는 獨立, 統制變數調整平均(adjusted for independents plus control variables)임.

〈附表 3-2〉 式 (5)의 MCA 推定結果

	標本數	α_1	α_2	α_3	F-score
全體平均		.76			
家族規模觀 (*FAMSZ*)		(.10)[1]	(.07)[2]	(.08)[3]	31.56
2 子女 以下	1,558	.72	.75	.81	
3 子女	1,306	.72	.72	.74	
1 子女 以上	2,403	.81	.79	.74	
子女에 의한 老後保障 期待 與否 (S 315)		(.03)	(.05)	(.03)	3.04
확실히 期待	1,795	.77	.75	.75	
다소 期待	1,191	.76	.75	.76	
期待하기 힘든다	1,133	.74	.75	.76	
전혀 期待하지 않음	1,148	.78	.80	.78	
出産에 대한 親族의 壓力(S 304)		(.04)	(.03)	(.03)	7.71
있음	2,777	.74	.75	.75	
없음	2,490	.78	.77	.77	
男便의 兄弟狀態 (S 309)		(.00)	(.01)	(.00)	.03
외아들	544	.76	.75	.76	
多兄弟	4,723	.76	.76	.76	
生存아들數 ($V221$)		(.16)	(.15)	(.07)	118.40
없음	1,027	.62	.63	.70	
하나 以上	4,240	.79	.79	.77	
Multiple R^2			.034	.098	

註 : 〈附表 3-1〉 參照.

〈附表 3-3〉 式 (6)의 MCA 推定結果

	標本數	α_1	α_2	α_3	F-score
全體平均		.76			
家族規模觀(*FAMSZ*)		(.10)[1]	(.11)[2]	(.07)[3]	31.40
2 子女 以下	1,600	.72	.71	.81	
3 子女	1,342	.72	.73	.74	
4 子女 以上	2,473	.81	.81	.74	
職業別(*BWRK*)		(.04)	(.04)	(.04)	4.68
農業	1,291	.74	.74	.74	
일한적 없음	2,691	.78	.77	.75	
非農業	1,433	.74	.75	.79	
成長期職業(*SWRK*)		(.10)	(.10)	(.05)	30.75
農業	1,780	.76	.74	.74	
일한적 없음	2,138	.72	.73	.76	
非農業	1,497	.82	.83	.79	
教育水準(*V*704)		(.06)	(.07)	(.07)	12.10
無學	1,132	.80	.78	.75	
初等學校	2,714	.74	.73	.74	
中等學校 以上	1,569	.77	.79	.81	
Multiple R^2			.026	.104	

註 : 〈附表 3-1〉 參照.

〈附表 3-4〉 式 (7)의 MCA 推定結果

	標本數	α_1	α_2	α_3	F-score
全體平均		.76			
出産에 대한 親族의 壓力(*S* 304)		(.04)[1]	(.04)[2]	(.03)[3]	11.50
있음	2,793	.74	.74	.75	
없음	2,497	.78	.78	.78	
生存아들數(*V*221)		(.16)	(.15)	(.05)	155.16
없음	1,031	.62	.63	.72	
1名 以上	4,259	.79	.79	.77	
住居地域別(*REG*)		(.03)	(.07)	(.05)	6.64
大都市(서울, 釜山)	1,594	.78	.80	.79	
其他都市	1,170	.75	.77	.77	
農村	2,526	.75	.73	.74	
教育水準(*V*704)		(.06)	(.06)	(.10)	9.70
無學	1,101	.80	.79	.73	
初等學校	2,653	.74	.73	.73	
中等學校 以上	1,536	.77	.78	.83	
「어머니會」參席與否(*S* 017)		(.13)	(.12)	(.09)	85.39
없음	4,192	.73	.73	.74	
있음	1,098	.87	.86	.83	
Multiple R^2			.048	.100	

註 : 〈附表 3-1〉 參照.

〈附表 3-5〉 式 (8)의 MCA 推定結果

	標本數	α_1	α_2	α_3	F-score
全體平均		3.50			
教育水準 ($V704$)		(.41)[1]	(.29)[2]	(.17)[3]	755.37
無學	1,100	4.60	4.30	3.96	
初等學校	2,648	3.57	3.52	3.51	
中等學校以上	1,535	2.59	2.90	3.15	
住居地域別 (REG)		(.31)	(.16)	(.16)	120.23
大都市(서울, 釜山)	1,591	2.91	3.17	3.16	
其他都市	1,168	3.16	3.36	3.36	
農村	2,524	4.04	3.77	3.77	
生存아들數 ($V221$)		(.38)	(.30)	(.15)	788.41
없음	1,027	2.17	2.44	2.97	
하나 以上	4,256	3.82	3.76	3.63	
家族形態 ($S108$)		(.08)	(.03)	(.06)	8.34
直系擴大家族	4,108	2.43	3.47	3.45	
核家族	1,175	3.75	3.40	3.68	
出產에 대한 親族의 壓力($S304$)		(.05)	(.00)	(.00)	.01
있음	2,792	3.41	3.50	3.51	
없음	2,491	3.60	3.50	3.49	
Multiple R^2			.284	.384	

註 : 〈附表 3-1〉 參照.

〈附表 3-6〉 式 (9)의 MCA 推定結果

	標本數	α_1	α_2	α_3	F-score
全體平均		3.51			
教育水準 ($V704$)		(.41)[1]	(.35)[2]	(.15)[3]	724.40
無學	1,129	4.60	4.48	3.94	
初等學校	2,708	3.58	3.52	3.51	
中等學校以上	1,565	2.61	2.79	3.19	
職業別 ($BWRK$)		(.31)	(.17)	(.06)	116.39
農業	1,289	3.99	3.69	3.64	
일 한적 없음	2,683	3.73	3.68	3.53	
非農業	1,430	2.66	3.03	3.36	
「매스콤」의 接觸度 (신문, TV) ($MEDIA$)		(.18)	(.00)	(.01)	.13
신문, TV 매일 접함	773	2.75	3.50	3.51	
가끔 접함	4,260	3.64	3.51	3.52	
전혀 접하지 않음	369	3.62	3.52	3.44	
「어머니會」 參席與否 ($S017$)		(.14)	(.13)	(.03)	140.05
없음	4,291	3.39	3.40	3.48	
있음	1,111	3.98	3.93	3.63	
家族形態 ($S108$)		(.08)	(.06)	(.06)	26.00
直系擴大家族	4,204	3.44	3.46	3.46	
核家族	1,198	3.76	3.69	3.70	
Multiple R^2			.214	.370	

註 : 〈附表 3-1〉 參照.

〈附表 3-7〉 式 (10)의 MCA 推定結果

	標本數	α_1	α_2	α_3	F-score
全體平均		.31			
希望子女數에 대한 夫婦間의 意見一致與否(*CONS*)		(.02)[1]	(.02)[2]	(.08)[3]	1.03
一致함	3,480	.31	.32	.32	
未確定임	1,083	.29	.29	.24	
不一致함	455	.31	.31	.36	
結婚生活의 安定度 (*MARR*)		(.03)	(.00)	(.02)	3.13
正常的 結婚生活	4,794	.31	.31	.31	
離婚, 再婚 및 別居	224	.25	.31	.26	
住居地域別 (*REG*)		(.19)	(.12)	(.13)	100.19
大都市(서울, 釜山)	1,505	.42	.38	.39	
其他都市	1,111	.35	.33	.34	
農村	2,402	.22	.26	.25	
文化用品의 數(TV, 冷藏庫) (*MDN*)		(.22)	(.18)	(.12)	77.57
하나도 所有하지 않음	3,693	.37	.26	.28	
둘 중 하나만 所有	1,062	.45	.42	.39	
둘 다 所有	263	.59	.54	.45	
Multiple R^2			.063	.129	

註 : 〈附表 3-1〉 參照.

〈附表 3-8〉 式 (11)의 MCA 推定結果

	標本數	α_1	α_2	α_3	F-score
全體平均		1.93			
敎育水準 (*V704*)		(.42)[1]	(.29)[2]		618.43
無學	1,126	2.05	1.97		
初等學校	2,676	2.05	2.03		
中等學校以上	1,543	1.63	1.73		
住居地域別 (*REG*)		(.26)	(.08)		55.67
大都市(서울, 釜山)	1,613	1.79	1.88		
其他都市	1,183	1.87	1.92		
農村	2,549	2.05	1.97		
文化用品의 數(TV, 冷藏庫) (*MDN*)		(.36)	(.22)		129.91
하나도 所有하지 않음	3,965	2.02	1.98		
둘중 하나만 所有	1,100	1.74	1.83		
둘 다 所有	280	1.43	1.60		
職業別 (*BWRK*)		(.23)	(.07)		14.39
農業	1,279	2.05	1.95		
일한 적 없음	2,655	1.96	1.95		
非農業	1,411	1.77	1.88		
成長期職業(*SWRK*)		(.21)	(.05)		8.06
農業	1,764	2.06	1.93		
일한 적 없음	2,096	1.83	1.91		
非農業	1,485	1.91	1.94		
Multiple R^2			.233		

註 : 〈附表 3-1〉 參照.

▷ 參 考 文 獻 ◁

李柄武, 『初婚年齡, 姙娠中絶 및 家族計劃이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 家族計劃研究院, 1970.

林鍾權·崔富玉, 『人工姙娠中絶에 관한 研究』, 家族計劃研究院, 1979.

韓聖鉉, 『人工姙娠中絶에 관한 研究』, 家族計劃研究院, 1973.

Aird, J.S., *Population Policy and Demographic Prospec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thesda, MD.: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1972.

Anderson, T.W., *Introduction to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New York: Wiley, 1958.

Bongaarts, John, *The Fertility-inhibiting Effects on the Intermediate Fertility Variables*, Working Paper of the Center for Policy Studies, New York: Pop. Council, 1980.

Burch, Thomas N., "Patterns of Induced Abortion and Their Socio-moral Implications in Post-war Japan" *Social Forces* 3 (4) : 1~11, 1955.

Cho, Lee-Jay, *Estimates of Current Fertil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Geographical Subdivisions 1959~1970*, Seoul: Yonsei Univ. Press, 1979.

Figa-Talamamanca, Irene, "The Effects of Programs of Birth Control Education on the Practice of Induced Abortion in Japan", *Genus*, Vol. 24(3~4) : 237~257, 1979.

Hayasaka Yokichi, Taske Ueno, Hideo Toda, Mineko Ishizaku, and Anthony Zimmerman, "Japan's 22 Year Experience with a Liberal Abortion Law," *Seminar Proceedings of XIIth International Congress of FIAMC*, Washington, D.C.: Shoreham Hotel, Oct. 11~14, 1970.

Honda, Tatsuo, "The Effect of Induced Abortion and Contraceptive Practice on Marital Fecundity in Pre-and Post-war Japan", in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Population Studies Translation Series No.1* ; 23~43, 1977.

Hong, Sung-Bong and Walter B. Watson, *The Increasing Utilization of Induced Abortion in Korea*,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1976.

Hopper, Robert F., "Abortion in Korea: Before and After and Law", *Journal of Family Planning Studies*, Vol.2 : 192~202, 1975.

Kim, Jae-On and Frank J. Kohout, "Analysis of Variance and Covariance", in *SPSS*, New York: McGraw-Hill, 1975.

Korea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KIFP), *Report on 1971 Fertility-Abortion Survey*, Seoul: KIFP, 1973.

Muramatsu, Minoru, "Effect of Induced Abortion on the Reduction of Births in Japan", *The Milbank Memorial Fund Ouarterly*, Vol.34(2) : 153~166, 1960.

Muramatsu, Minoru, "Spontaneous and Induced Abortion in Japan", Working paper,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969.

Muramatsu, Minoru, "An Analysis of Factors

in Fertility Control in Japan",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Public Health*, 19(2) : 97~107, 1970.

Park, B.T., B.M. Choi, and H.Y. Kwon, *The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Seoul: KIFP, 1979.

Suzumura, Masakatsu, "Induced Abortion in Japan-Review of Literature", *Jour. of Japanese Obstetrical and Gynecological Society*, 13(3) : 179~197, 1966.

Taeuber, Irene, *The Population of Jap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58.

Tietze, Christoper, "Induced Abortion as a Method of Fertility Control", in S.T. Behrman, Leslie Corsa, Jr. and R. Freedman (eds.),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A World View*,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311~337, 1969.

Tietze, Christoper, *Induced Abortion: 1979*, 3rd edition, New York: Population Council, 1979.